



1929년 경제 대공황으로 일자리를 잃고 무료 급식소에서 차를 기다리는 미국의 시민들.

〈광주일보 자료사진〉

# 실업에 무책임한 정부는 몰락한다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실업이 바꾼 세계사**  
 도현신 지음



큰 것은 '비정규직 문제 증가' (88.8%)를 꼽았다. 또한 외환 위기가 한국 경제에 끼친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양극화 심화'를 선택한 응답자(31.8%)가 가장 많았다. 비정규직 문제와 양극화는 결국 실업문제와 연관돼 있다. 더욱이 최근 청년실업은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을 만큼 악화일로다. 1997년 외환위기의 그림자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곳곳에 짙게 드리워져 있다.

"1929년 10월 미국발 경제 대공황이 시작되자, 대미국 수출에 크게 의존하던 독일 경제는 치명타를 입었고 600만 명이나 되는 실업자가 발생했다.

## 지배층 무능·부패가 부른 불황

## 2차대전·고려 삼별초 난의 원인

## 역사 바꾼 14가지 실업난 다뤄

그리고 경제가 파탄나면서 독일인들은 그 해결사로 "내가 집권하면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독일 경제를 살려내겠다!"고 외친 히틀러를 선택했다."

일자리는 세상을 바꿔버릴 만큼 휘발성이 강한 문제다. 지배층의 무능과 부패, 불황 등으로 기인한 실업은 자칫 사회 혼란을 넘어 지배층의 교체, 나라의 멸망에까지 이르게 한다. 일자리는 결국 삶의 모

든 것이며,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이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동양과 서양의 역사를 바꾼 14가지 실업문제를 다룬 책이 출간됐다. 과연 실업을 방지한 사회, 빈곤에 무책임한 나라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원군과 이순신' 등 역사교양서를 꾸준히 펴내고 있는 도현신 작가의 '실업이 바꾼 세계사'는 대량해고, 불황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였는지 다각도로 조명한다. 책은 90컷의 이미지와 지도 등이 수록돼 있어 이해를 돕는다.

6세기 중국에서 태평성대를 구가하던 양나라는 지배층의 이기심과 무능으로 멸망한다. 당시 양무제 소연은 측근과 지배층의 백성에 대한 수탈을 방지했고 그로 인해 난이 일어났다. 17세기 명나라는 청나라와의 전쟁에 대한 군비지출을 역졸들에게 부담하는 바람에 몰락한다. 해고된 역졸 출신 이자성이 난을 일으켰던 것이다.

20세기 들어서면서 실업은 특정한 지역을 넘어 세계 곳곳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1929년 경제 대공황은 결국 전쟁이라는 무시무시한 재앙을 초래했다. 1992년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사이에 체결된

북미자유무역협정은 멕시코 경제난을 가중시켰다. 이후 멕시코에는 거대 마약조직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정부와의 충돌이 이어졌다. 저자는 "멕시코에 마약 조직이 창궐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마약 밀매가 가난에 찌든 멕시코인들의 생계수단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저자는 우리나라의 역사 속 실업도 소개한다. 고려 삼별초의 난을 예로 들면서 "실업(삼별초 혁파)로 전락한 것도 모자라 외국에 총알받이로 끌려갈(삼별초 명단이 몽골로 넘어감) 위기에 처하자, 분개하여 무기를 들고 자신들의 생계를 외면한 정부 권력에 맞서"게 됐다는 것이다.

실업은 더 이상 개인 문제로 한정해서는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전체 사회 문제라는 인식의 토대 위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 불평등한 부의 분배 등을 개선해야 한다. 1997년 IMF 경제위기는 여전히 우리 사회를 짓누르고 있다. 수많은 이들이 그때 만들어진 사회제도에 얽매어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말이다.

〈서해문집·1만39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배수아 지음 '뱀과 물'

배수아 작가가 2010년 '올빼미의 없음' 이후 7년 만에 소설집 '뱀과 물'을 펴냈다. 한국문학에서 '배수아'는 이국적인 뉘앙스를 환기하는 소설가로 각인돼 있다. 그의 소설은 이전 세대와 동시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서사보다 이미지와 목소리에 가까운 작품은 독자로부터 "이것도 소설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했다.



그럼에도 배수아는 나름의 마니아층을 거느린 작가로 지난 24년 간 열세 권의 장편과 여덟 권의 소설집을 통해 꾸준히 자신만의 문학세계를 열어왔다. 배수아가 다른 소설가와 변별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번역을 매개로 외국의 작품을 한국에 소개해왔다는 점이다. 페르난두 세소아, 막스 피카르트, 사뮈엘 베케트, 토마스 베른하르트의 작품을 독자들에게 알렸다. 격월간지 '악스트'의 편집위원으로 해외문학을 담당하게 된 경위는 비슷한 맥락에서 일한다.

아홉 번째 소설집 '뱀과 물'에서 작가는 어린 시절로 독자를 안내한다. 소녀 시절은 '비밀스러운 결속'과 환상적인 시공간을 배경으로 펼쳐지는데 모든 게 비정상적이고 낯설다. 순순한 시간과는 거리가 먼 부모의 부재, 그들을 찾아 떠나는 길 등 '악몽'과도 같은 배경이 혼재돼 있다.

"어린 시절은 망상이에요. 자신이 어린 시절을 가졌다는 믿음은 망상이에요. 우리는 이미 성인인 채로 언제나 바로 조금 전에 태어나 지금 이 순간을 살 뿐이니까요."

〈문학동네·1만35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알베르 카뮈 외 지음·백성희 옮김 '알베르 카뮈와 르네 사르의 편지'

프랑스 문학을 이야기할 때 이들을 빼놓을 수 없다.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알베르 카뮈, 프랑스 현대시를 대표하는 르네 사르. 두 거장이 시와 소설을 넘어 편지를 통해 마음을 나눈다. '알베르 카뮈와 르네 사르의 편지'는 두 사람이 13년 동안 주고받은 184통의 편지를 담은 것이다. 한 삶에서 가장 중요한 상황들, 섬광 같은 행운처럼 삶을 바꿔 놓는 상황들을 성찰해보게 하는 만남과 우정을 담았다.



오직 한 사람을 위한 편지, 오직 한 마음을 위한 기록은 이들의 우정이 깊어지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들은 한 시대를 함께 살았고, 함께 전쟁을 겪었고, 전쟁을 통해 더 성숙해진 작품을 많이 내놓았다. 조심스럽고 수줍은 첫 편지를 시작으로 카뮈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뜨기 전까지, 그들이 나누는 우정의 조각들은 두 거장들의 내밀한 속내를 엿보게 한다.

1946년부터 1959년까지 그들이 주고받은 편지 속에는 집필 중이던 작품, 당시의 시대 상황, 가족에 대한 마음과 삶에 대한 고민이 가득 없이 녹아 있다. 작품 안에서는 만날 수 없는 작가들의 민낯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들의 편지가 보여주고 있다. 이들의 만남은 시인과 소설가의 만남을 뛰어넘어 한 인간과 인간이 나누는 세계의 결합을 보여준다. 알베르 카뮈가 르네 사르의 시를 읽고 진정한 시를 깨닫게 되었다는 편지는, 이들의 문학적 교류가 얼마나 깊고 아름다웠는지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알베르 카뮈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을 듣고 자기 일처럼 기뻐했다는 르네 사르의 이야기는 이들의 우정이 얼마나 깊고 진했는지 짐작하게 한다.

〈마음의숲·1만6000원〉

/전은재기자 ej621@kwangju.co.kr

### 김영수 편저 '중국 3천년 명문가의 자녀교육법'

"검소에서 사치는 가기 쉬워도, 사치에서 검소로 가기는 어렵다."(사마광이 아들에게)  
 "습관이 뿌리를 내리면 고치기가 힘들다."(왕수인이 동생들에게)  
 동양사회에서 가정과 가족은 2000년 넘게 봉건사회를 받들어온 절대적인 구성단위였다. 시대가 흘러 가정의 개념이나 모습이 많이 변모되었지만 본질을 바꾸지 않았다. 많은 이들에게 해당되는 경우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는 가장 먼저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상기한다.



귀한 자식일수록 가정교육에 얽매던 중국 명문가의 교육철학을 엿볼 수 있는 책이 발견됐다. 중국 역사서 '사기' 연구가인 김영수 한국사마천학회 상임임사가 펴낸 '중국 3천년 명문가의 자녀교육법'은 자녀 교육법이 총망라돼 있다. 자녀들뿐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유용한 지혜가 담겨 있어 참고할 만 하다.

책은 우리 교육 현실에 비춰서도 실질적이며 다양하다. 모든 교육의 출발은 가정이고, 그 가정을 책임진 사람은 다름 아닌 부모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부모에서 시작하고 부모에게서 끝나는 것이다. 즉 중국 명문가의 자녀교육 비결은 부모의 '본보기 교육'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책에는 또한 가정이 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 성격의 '가서'(家書)가 소개돼 있다. 동방삭, 제갈량, 사마광, 왕수인, 중국번, 서유어, 주희, 설선, 여선, 팽옥린, 정섬, 양호 등 15명의 명사들이 보낸 가서는 시대를 초월해 감동을 준다. 〈스마트비즈니스·1만5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 경, 공매 컨설팅

### 수익형 추천

- ★ [건물] 광산구 월곡동 복합스포츠타운 수익률최상 대지 3,906㎡ 건물 2,689㎡  
매매 81억 투자자가능 (수영장, 키즈카페, 사우나)
- ★ [건물] 서구 쌍촌동 메인상권 지하2층 지상10층 (사육최적합 대로변, 병원가능)  
대지 777㎡ 건물 5,900㎡ 매매 55억 (보17억1천 월1천1백 5십만)
- ★ [건물] 동구 동명동 대로변접 상가주택건물 5층  
대지 452㎡ 건물 1,464㎡ 매매 17억 (사우나)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위치좋은 상무대로변 대지 1342㎡ 건물 413.49㎡ 매매 49억 (주상복합, 쇼핑타운적합부지)
- ★ [건물] 광주 동구 지산동 중심상권 상가 밀집지역 위치좋은 지하1층~지상5층 대지 198㎡ 건물 729㎡ 매매 25억 (보5억6천500만)

### 병원

- ★ [의료시설] 광주시 북구 신안동 지하층 지상4층 토지 552㎡ 건물 995㎡ 최신시설 매매 30억 월수익1천6백5십만
- ★ [의료시설] 광산구 신가동 요양병원 지하층~지상4층 대지 3,000㎡ 건물 3,568㎡ 매매 56억
- ★ [의료시설] 광주시 남구 주월동 지하1층 지상7층 토지 1,490㎡ 건물 6,646㎡ 최신시설 매매 75억
- ★ [의료시설] 광주시 서구 농성동 지상5층 토지 2,319㎡ 건물 3,998㎡ 매매 73억
- ★ [의료시설] 전남 화순읍 신기리 지하층 지상4층 토지 8,630㎡ 건물 6,300㎡ 매매가 (상담요양)

### 공·경매 교육안내

저희 공·경매전문기관인 지오옥션부동산중개법인(주)에서는 그 동안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공·경매 실전교육을 하고자 하오니 관심이 계신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 11월 중순부터 매주 1회 저녁반
2. 장소 : 본 중개법인 강의실
3. 교육내용 : 이론과 실무를 겸한 실전공·경매 과정
4. 대상 : 1) 공인중개사 2) 공·경매에 관심이 있는 자 등
5. 수강료 및 교재대는 실비로 함
6. 강사
  - 1) 본 법인 이사
  - 2) 전,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공·경매과정 겸임교수
  - 3)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실무교육-매수신청교육 교수

\*기타 자세한 문의로는 본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 매매, 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김재훈 062-714-2251